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모델 제시 - 경북대학교 -



각종 재원의 수도권 중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총장 김달웅)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대학발전 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졸업생들을 좀 더 많이 서울로 보내기 위해, 혹은 수도권 대학들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라는 생각은 버렸다. 오히려 대학발전은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과 맥을 함께 한다는 데 공감하며, 지역 기업 및 연구소들과의 산학협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거점 지역으로 한계를 짓거나 경계를 구분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대학이 위치한 이 지역이 경북대학교로서는 중심인 것이다. 경북대학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을 겨냥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로 직접 소통하는 세방화(世方化)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대학교는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으로, 또 산학협력의 선두주자로 국내 여타 대학의 모델이 되고 있다.

경북대학교가 가면 길이 된다

-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국제화 교육의 이정표 세워

경북대학교가 자랑하는 세방화 프로그램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해외인턴이다. 대학 국제교류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꾸준히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여타 대학과 달리 경북대학교는 해외 단기 캠프나 리조트에서의 인턴활동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국가로, 보다 전공에 가까운 전문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④ 해외인턴 최초 시도,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워싱턴 인턴십 프로그램 연결

경북대학교 해외인턴제의 대표적인 예는 '워싱턴 인턴십'으로, 워싱턴 인턴십 프로그램은 워싱턴 정부기관뿐 아니라 비정부기관, 각종 국제기구에서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인턴기간은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이며, 미국 '워싱턴 인턴십 프로그램(Washington internship program)'이라는 기관과 연계되어 파견기관을 정하게 된다. 몇 년에 걸쳐 진행 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 D.C.에는 경북대학교 인턴십 참가자들이 각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 중이다.

워싱턴 D.C.는 수없이 많은 미 정부기관과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대사관, 각종 입법운동가단체, 이익단체들이 빼곡히 위치한 도시로 세계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백악관 자문기관, IPC(농업 외교 관련 비정부기관), UBS Financial(은행), Fox 18 News(방송국) 등의 공공기관, 비정부기관, 방송국, 잡지사, 무역회사, 통신업체, 박물관 등에서 인턴생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7개 업체에 모두 545명의 해외인턴을 파견했으며, 그 중 워싱턴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이들은 54명에 이른다. 그들에 의하면 국내대학 중 워싱턴 인턴십을 대학차원에서 연결시켜 주는 곳은 경북대학교가 유일하다. 간혹 여타 대학 학생들을 만나지만 그들은 모두 개인이 스스로 인턴십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다. 경북대학교는 작년 가을부터는 뉴욕시의회, Wicked fashion(의류회사), Art4Love(아트 비즈니스 회사) 등 뉴욕지역에도 인턴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올해도 워싱턴으로 19명, 뉴욕으로 22명의 학생을 파견한다.

④ 한국 대학생의 우수한 자질 해외에 알려

물론 인턴생들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한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생활은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낯선 땅에서의 향수, 언어능력의 한계, 문화적 차이까지 더해져 그 중압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온 대다수의 학생들은 타문화권의 조직사회에서 일하는 법과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스스로 익혀서 돌아온 것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무언가 하나를 이루어냈다는 자신감은 인턴생들이 건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고, 열정을 쏟아 붓는 법을 배운 이들은 분명 무언가 다른 활력소를 우리 사회에 던져줄 것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정해진 인턴기간이 끝났지만, 업무능력을 인정한 업체의 요구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기간을 연장해 일하고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다. 드물지만

소수는 현지 취업을 제외받기도 한다. 해외인턴을 통해 경북대학교는 서울을 통하지 않고, 지역에서 세계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역량을 갖춘 소수의 뛰어난 때문이 아니라 경북대학교 인턴십 시스템상 가능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상황에 따라 명맥이 끊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글로벌챌린저, 해외봉사활동 등 연간 1천 3백여 명 해외 파견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는 드물게 인턴 파견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해외인턴제 때문에 경북대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경우 까지 생겨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북미지역 파견생이 484명으로 가장 많으며, 유럽 25명, 중국 22명이 그 뒤를 따른다. 최근에는 일본에 10명, 호주에 5명을 새롭게 파견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 학생 가운데 소수만이 파견되지만, 해외인턴제는 타 문화권을 체험할 수 있으며, 사회인으로서의 경험을 갖게 하고, 외국어 학습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는 등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대학 측은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인턴 외에도 해외 주제탐방을 위한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 해외봉사활동, 교환학생, 어학연수, 복수학위제 등의 세방화 프로그램과 대학 내의 누리사업단, BK21사업단을 통해 경북대학교는 2005년 한 해 동안 1천 3백여 명의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했다. 2005년 추가 선정된 누리사업단과 신설된 '도전장학제도'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를 감안하면, 2006년에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삼아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맞춤형 인재양성 앞장

-기업과의 新산학협력 선도한 산학협력 최우수대학

세방화 프로그램 못지않게 경북대학교가 자랑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단연 '샌드위치 교육과정'이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1998년부터 국내 최초로 인턴십의 일종인 샌드위치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재학 중에 전공 분야, 혹은 본인이 원하는 산업 분야의 현장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업자원부와 여타 대학들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경북대학교를 벤치마킹한 바 있다.

20대여 열정을 가져라!

김연수(영어영문학과 02학번, 신문방송학과 복수전공)
인턴기관 : Talk Radio News Service / Korean Embassy



▲ 미 국회의사당 상원의원 프레스 갤러리에서

여기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미국, 그 미국을 이끌 어가는 심장부 워싱턴, 그 워싱턴의 상징인 미국 국회의사당이다.

미국 국회의사당에 있는 메이저 방송국과 그 외 중요 정치전문 방송국들의 부스가 모여 있는 프레스 갤러리에 내가 있다. 내 기사를 편집하고 사운드 클립 상태를 점검해서 데스크로 보내고, 편집이 끝난 기사가 회사 사이트에 등록되면 비로소 웃을 수 있다. NBC, FOX, CBS, ABC, CNN 기자들과 이렇게 웃으며 인

사하고, 서로의 취재상황을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싱긋 웃고 퇴근하는 내 목에는 미국 국회의사당 출입기자증이 걸려 있다.

첫 출근 이후, 나는 『Washington Post』를 정독하느라 거의 매일 밤을 새웠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정치 상식면에서도 나의 부족함은 확연히 드러났다. 게다가 회사 내에 동양인은 나 하나였다. 미국의 미디어 세계 역시 백인들의 수가 압도적이었으며, 아직도 남자 기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을 망신시키고 싶지도, 그리고 여성을 망신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대입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간이었으며,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을 편하게 잠들어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내 생애 가장 치열했던 4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치열한 내 삶에 미국 국회의사당 출입기자증이 쥐어졌다. 노력, 기회, 보상의 3박자가 철저히 지켜지는 미국사회에서의 도전의 첫 보상이었다.

Condoleezza Rice 취재가 5월에 2건이나 있었다. 미 국무부 장관인 그녀는 흑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국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정치적인 입장을 뒤로 하고,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나의 역할모델이 되었다. 미국 정치는 어쩌면 한국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회에서 국무부 자리에 오른 여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두 번째 인턴기관은 한국대사관이었다. 새로운 문화행사를 기획해야 할 때나 큰 기획기사가 실릴 때면, 내게 주어진 역할 이외의 일도 맡아서 진행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주도적인 내가 되자는 것은 지난 미국생활과 Talk Radio News Service에서 배운 값진 교훈이었다. 내 책상이 생기고, 나만의 랩탑 컴퓨터를 지급받고, 통화료와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서 노력은 언제나 되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흘린 땀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택한 길, 그리고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에게 대한 보답이 될 수 있어 좋았다.

20대라면 자신을 위한 도전을 1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 사소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열정은 수다와 다름이 없다.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열정을 100%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대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④ 대학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샌드위치 교육과정



▲ 샌드위치 교육과정

샌드위치 교육과정은 학생들로서는 재학 중 자신의 적성을 탐색해 볼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방학 기간, 혹은 학기기간 동안 현장에 파견되어 실습에 참여하며, 학점이수에 실습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총 6,752명의 학생들과 3,587개의 산업체가 참여했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졸업한 학생들 중 샌드위치 교육과정 참여 학생의 73.2%가 자신의 실습 기업체에

취업하였으며, 실습 참여 학생의 총 취업률은 90.2%에 달할 정도였다. 자신의 적성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졸업 후 무작정 취업해, 이내 다시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샌드위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 주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측면에서의 효과도 가진다.

샌드위치 교육과정 체험수기

21세기엔 내가 주인공

박준욱(전자전기컴퓨터학부 98학번, 2005년 삼성전자 입사)

실습기관 : 삼성전자

드디어 인턴 생활의 시작! 가장 먼저 1주일간의 입문교육이 시작되었다. 이제껏 학교 울타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회사라는 또 다른 세계는 너무나도 낯선 미지의 세계였다. 입문교육과정에서는 회사 내에서의 예절, 안전수칙 준수, 보안교육 등의 과정을 이수하였다. 나는 무선통신 단말기 개발팀에 배치되었다. 우리 팀의 업무는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PC환경에서와는 달리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하드웨어 전반에 대한 지식 등 대학교 시절 많이 다루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많은 전문지식을 요구하였다. 왜 진작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을까 하는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생겼다. 하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쉬움을 떨치고 참고자료를 찾으며, 또 선배들에게 물으며,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면서 나는 조금씩 성장해갔다. 샌드위치 교육과정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미리 몸으로 부딪치며 현장을 체험하면서 진정 나에게 필요한 지식, 유용한 경험을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산학협력 최우수대학 대통령표창 수상, 맞춤형 인재양성 선도



▲ 2004년 11월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장면

샌드위치 교육과정을 통해 재학생의 현장적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경북대학교는 각종 산학협력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주)만도와 협정을 체결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트랙(track)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2년 동안 기업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공부하고, 재학 중 기업문화와 현장업무를 체험하며, 졸업 후 그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 때문에 보다 일찍, 보다 안정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만도와 함께 운영하는 '경북대-만도 트랙'의 경우, 매년 20명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시작하고 있으며, 2004년에 '경북대-만도 트랙' 과정을 시작한 이들은 이제 회사에 입사하여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이 밖에도 경북대학교는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테크노파크, 핫라인센터, 테크노MBA과정, 모바일테크노 빌딩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경북대학교의 의지를 뒷받침한다. 그 결과 경북대학교는 지난 2004년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산학협력 최우수대학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2005년 박람회에서도 대학 내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과 디지털메카트로닉스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단(누리사업단)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북대-만도 트랙 체험수기

슈퍼루키! 기업이 원하는 내가 된다

허성한(전자전기컴퓨터학부 98학번, 경북대-만도 트랙 참가자)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 졸업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기업이란 곳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는 기업이 예비 신입사원인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입사 후 무엇을 하게 되는지,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들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경북대-만도 트랙'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런 정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었다. 학기 중 전공수업과 여름방학 기간 동안의 현장연수를 통해 어떤 전공과목을 다시 봐야 하는지, 왜 실험수업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또 공학도가 잘 접하기 힘든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마인드, 식스시그마(6-sigma) 개념 등을 가지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좀 더 계획적이고 큰 포부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시야가 학교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넓어지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연구력 갖춘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논문 성과, 국책사업 등 각종 선정 평가 실적 으뜸

전국 최대 규모의 IT 특성화 학부인 전자전기컴퓨터학부를 가지고 있는 경북대학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연구의 질이 곧 교육에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아래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 연구의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대내외적인 평가들이 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④ 과학기술 분야 논문 성과 전국 최고

최근 언론의 한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2004년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성과분석에서 연구비 10억당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수 84.59편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인 논문 게재 수가 44.58편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실적이다. 또 연구비 10억당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 수에서도 경북대학교가 70.20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전체 평균 31.57편의 2.2배에 달한다. 경북대학교는 2004년 한 해 동안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에서 총 28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한편 경북대학교는 지난 1월에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논문 피인용도 국내 1위를 차지, 과학기술 분야 연구논문 질적 수준이 국내 대학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홍성제 포항공과대학교 연구팀이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과제 '2004년도 국내 과학자들의 SCI 연구실적'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NCR(National Citation Report)을 기준으로 피인용수 상위 10개 대학 중

〈표〉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비 10억당 연구성과 주요 기관별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수

순위	대 학 명	전 문 학 술 지	
		전체	SCI
1	경북대학교	84.59	70.20
2	부산대학교	76.94	40.59
3	동국대학교	76.03	61.53
4	성균관대학교	65.50	44.94
5	충남대학교	57.59	40.82
6	인하대학교	54.43	36.49
7	광주과학기술원	54.41	46.07
8	한양대학교	53.73	34.67
9	한국과학기술원	52.20	38.73
10	고려대학교	44.83	34.81

* 자료 :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한국과학재단)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가 0.5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대학교 0.36, 연세대학교 0.39, 고려대학교 0.36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④ 대형 국책사업 속속 선정 - 연구중심대학 위용 갖춰



▲ 모바일테크노 빌딩 투시도

경북대학교는 그간 각종 대외 평가에서도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 상해교통대학교에서 선정하는 세계 500대 명문대학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최근 5년간 지방대학 중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2년 동안의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서 4개 누리사업단과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IT협동연구센터 등을 포함해 16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

1,630억 원을 지원받는다. 4개 누리사업단의 주관대학으로만 680억 원을 지원받아 국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대학 중 두 번째로 대학 내에 첨단 반도체 융합연구동을 갖추었으며,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모바일디스플레이 산학협력센터(MDRC)’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 3월 29일, 경북대학교는 대구시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대학 내에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의 모바일테크노 빌딩 기공식을 가졌다. 총 180억 원이 투입되어 2007년 초에 완공될 모바일테크노 빌딩에는 모바일 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종합 모바일 R&D센터로 탄생된다. 센터 건립은 기업과 대학, 기관과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산업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를 비롯해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는 대학이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라고 한다. 학생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대학은 변화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역시 학생, 기업체, 지역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경북대학교의 세방화 프로그램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며, 우리나라 대학가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경북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았다. 현재 ‘달구벌 긍지 넘어, 글로벌 으뜸까지’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개교 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슬로건에 집약된 정신처럼 한강 이남 최고의 국립대학으로서 명성을 쌓아온 경북대학교의 미래는 국제화 교육의 성공으로 한층 밝아질 것이다. 60년의 역사 동안 늘 젊은 가슴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시켜 온 경북대학교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주목받는 이유, 그것은 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의 ‘도전과 패기’ 때문이다.

글/신기훈(경북대학교 기획과)



경북대학교 명소

“경북대학교로 산책오세요!”



▲ 일청담



▲ 야외박물관(월파원)



▲ 만오원



▲ 백양로

빼어난 운치를 자랑하는 경북대학교 캠퍼스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1년 내내 사랑을 받고 있다.

정문에서 일청담까지 이어지는 러브로드는 연인들의 전설이 깃들여 있는 곳으로 남녀가 러브로드 끝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4월이 되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멋진 풍광이 연출되고, 여름이면 녹음으로 가득하고, 가을이면 소복이 쌓인 낙엽에, 겨울의 설경까지 멋지다. 옆쪽으로는 월파원이라 불리는 야외박물관이 있다. 월파원의 푸른 잔디와 석탑과 불상은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한다.

러브로드 끝에 다다르면 감꽃 모양의 연못인 일청담에 도착한다. 1년 내내 시원한 물줄기를 뿜으며 경북대의 상징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청담은 햇볕이 따뜻한 날이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신학기와 축제 때면 자리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학생들에게는 인기장소이다.

일청담을 사이에 두고 러브로드와 마주하고 있는 백양로는 서문까지 그 위세를 자랑하며 쪽 뻗어 있다. 특히 백양로가의 아름드리 백양목이 절경이다. 밤이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과 연인들의 산책코스로도 좋다. TV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이용되었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백양로를 따라 걷다 보면 테니스코트와 농구코트는 운동하는 사람들로 늘 활기차다. 코트에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구름다리가 가로질러 있는 만오원을 볼 수 있다. 못 주위로 5개의 정자가 늘어서 있고, 철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니 무릉도원이 따로 있을까?

아름다운 풍경에서 유물유적에 이르기까지 캠퍼스 전체가 공원같은 경북대학교 캠퍼스. 올 봄에는 가족, 연인과 함께 대학캠퍼스의 분위기를 느껴보자.

박영민(응용화학과 1학번, 경북대 홍보도우미)

직업탐색과 진로설계, 미리미리 합시다

경북대학교는 매학기 직업능력개발 교양과목인 '직업세계와 진로설계'를 개설해 재학생들이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 현재는 매 학기 35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다. 첫 한 달 동안은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코리아 리크루트 대표 이사, 포스코 인사팀장, 위니텍 대표이사 등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인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마지막 3주는 실제로 직업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 한다.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다양한 과제들이다. 직업설계 관련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과 인생관, 지능, 성격, 환경 등의 자기이해 보고서를 쓰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그 분야의 인사들을 방문해 증명해 보여야 한다. 또 연령별 생애계획, 수업이 진행되는 15주 동안의 자기통제 기록표 등 제출해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과제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명확한 미래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는 경북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들은 오히려 고맙기만 할 뿐이다.

수업 분위기는 활발하면서도 다소 진지하다. 첫 시간, MBTI 성격유형검사와 Holland 직업적성검사가 끝나고 학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검사결과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의외의 결과에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조별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유형의 직업적성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도 의미 있었다.

취업 걱정에 졸업이 두렵고, 막상 취업이 되어도 적성에 맞지 않아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새 취업준비소가 된 대학, 하지만 이제는 거부한다. 경북대학교는 학생들이 제각각 꿈을 품고 열정으로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미래설계소로 발돋움하고 있으니까.

- 정영미(생명공학부 03학번, 경북대 학생리porter)